

Korea UK

Connection :

*Arts Exchange Programme 2014*

2014 한 — 영 커넥션 :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 자료집

2014 한 — 영 커넥션 :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 자료집

Korea — UK Connection :  
Arts Exchange Programme 2014

## 2014 한-영 커넥션: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

###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한영국문화원

### 진행

김은희, 박기문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박윤조 / 주한영국문화원

Carole McFadden / 영국문화원 런던 본부

### 참가자

정대경 /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강낙현 / 두리총터/포이어 프로덕션 예술감독

배재휘 / LIG문화재단 프로듀서

### 자료집 편집

미디어버스

### 디자인

도한결

×  
인사말

6

×  
프로그램 소개

8

×  
영국 방문 리포트 1

런던의 연극중심극장을 통한 신작개발시스템과 극장운영에 대하여  
정대경,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10

×  
영국 방문 리포트 2

'Theatre' (새로운 극장)의 미래를 위한 영국의 시도  
강낙현, 두리춤터 / 포이어 프로덕션 예술감독

24

×  
영국 방문 리포트 3

한-영 커넥션: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  
배재휘, LIG문화재단 프로듀서

32

×  
프로그램을 마치고

참가자들 간의 이야기

34

×  
프로그램을 마치고

공연예술 관계자들과의 이야기

40

×  
방문 기관 소개

44

## 인사말

한국과 영국의 공연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국문화원과 함께 ‘한-영 커넥션: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예술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해외 문화예술 전문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커넥션 사업(KAMS Connection)’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외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상호교환 방문 리서치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며, 이는 향후 더욱 심도 깊고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리서치 후에 개발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사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국문화원과 2012년부터 진행해 온 ‘한-영 커넥션: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영국의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두산아트센터와 영국의 트레이버스 씨어터는 양국 작가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영국의 웨일즈 국립극단에서 주최하는 여름 캠프에 올해 최초로 한국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교류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영 커넥션: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은 ‘양국 극장 간 교류’를 주제로, 한국의 극장 관계자 세 명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한국에 돌아온 후 일정이 매우 바빴긴 했지만 ‘가장 맛있는 나랏밥’을 먹고 왔다면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어 저희들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늘 많은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해주신 영국문화원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과 영국 양국 간 공연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인사말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한-영 커넥션 영국 방문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며, 이번 자료집을 선보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 자료집이 한국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들께 영국 공연 예술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길 바랍니다.

2014 한-영 커넥션 프로그램을 통해 주한영국문화원과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의 공연예술 전문가 세 명을 영국으로 초청하여 새들러스 웰스, 로열코트 등 영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단체 및 극장 10곳을 방문하고 분야 전문가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영국과 한국의 공연예술 교류 및 극장 간 교류가 더욱 더 활발해지고, 양국 단체 간의 교류가 다양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지식과 새로운 네트워크가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을 확신하며 앞으로 더 많은 영국의 공연예술 관계자들이 한국 현대 공연 예술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발견하기를 기대합니다.

영국문화원은 한국과 영국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예술가, 예술전문가,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집은 이 교류 프로그램이 양국 공연 예술계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교류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프로그램 소개

한-영 커넥션: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

Korea-UK Connection: Arts Exchange Programme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영국문화원은 2012년부터 한국-영국 공연예술 전문가 교류를 통해 양국 공연예술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영 커넥션: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아티스트 인큐베이팅’을 주제로 한국과 영국의 공연예술 관계자 6명(한국 3명, 영국 3명)이 각각 영국과 한국 방문 리서치를 진행했고, 이듬해에는 ‘한-영 극장 간 교류’를 주제로 2013년에는 영국 관계자 3명이, 그리고 2014년에는 한국 관계자 3명이 각각 한국과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2014년 한국 참가자들의 영국 방문은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 8일 간 진행되었으며, 주요 공연예술 기관 방문, 관계자 미팅, 공연 관람, 개별 리서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은 소극장 연극, 다원예술, 커뮤니티 댄스라는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각자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가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1

# 런던의 연극중심극장을 통한 신작개발시스템과 극장운영에 대하여

정대경 |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지난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주한영국문화원이 주최한 ‘한-영 예술교류 프로그램(UK/KOREA ARTS EXCHANGE PROGRAMME)’으로 런던을 다녀왔다. 영국문화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영국의 주요 연극, 무용, 공연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미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이 펼치고 있는 사업과 운영방식, 사회적 역할에 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필자의 런던의 연극중심극장 방문은 공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 민간소극장이 현실적 위기를 극복하고 소극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이 글은 런던의 연극중심극장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신작 개발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 집중하였다.

## 로열코트 씨어터

로열코트 씨어터(Royal Court Theatre)는 영국과 전 세계의 혁신적인 작가들을 발굴해냄으로써 선도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찾아내는 작업에 초점을 맞춘 국립 극단(national company)이다. 새로운 작품을 발굴해내는 이 극장의 역할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하다. 뉴욕 타임즈는 이 극장이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극장’이라고 평하였다.

로열코트는 매년 엄청나게 많은 신작을 수용하고 평가하는 진취적인 작가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로열코트는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굴한 작품을 뉴욕, 시드니, 브뤼셀, 토론토와 더블린에서도 공연하였다.

뛰어난 자체 프로덕션은 물론, 로열코트는 지역 작가에서 국제적 작가 발굴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극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의 젊은 작가들을 영국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모국어로 신작을 쓰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국의 작가, 배우, 연출들이 전세계의 작가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진 작가 프로그램은 26세 미만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개최되는 페스티벌과 함께 상시로 운영하는 작가발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극장 방문 시, 10여 명에 달하는 한국의 신진작가들의 리스트를 보여 주며 그 중 한명을 선정하여 초청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한 때 도박이라고 평가되었던 로열코트의 이러한 작가 발굴 프로그램의 성공은 전 세계의 연극계에 확신을 주었으며 아티스트와 관객 모두의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잉글리쉬 스테이지 컴퍼니(English Stage Company)는 1956년에 '로열코트'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으며 예술감독 조지 데빈은 극장을 극작가 발굴에 특성화된 곳으로 정착시켰다. 1956년 5월 8일, 존 오즈본의 <Look Back in Anger>가 공연되었다. 조지 데빈은 '직설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작가들'을 발굴하려고 하였고, 영국 공연예술계를 자극하고 도전하는 극장을 창조하였다.

1960년, 로열코트 씨어터는 검열 문제에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오즈본의 <A Patriot for Me>와 에드워드 본드의 <Saved>에 관한 논란은 이 극장이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이 되도록 하였고, 두 작품의 흥행은 영국의 극장 검열법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9년에는 1층의 400석 규모의 극장에 더해 2층에 63석의 작은 스튜디오도 오픈하였다. <로키 호러 쇼>는 1973년 2층 스튜디오에서 초연되었다. 걸출한 작품들이 초연된 곳이지만, 극장은 20세기 중반까지도 물이 새는 등 열악한 시설과 고투해야 했다. 1995년 붕괴 위험으로 폐쇄될 상황에서 복권 기금 및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아 내부를 완전히 재건축하였다.

로열코트는 영국의 첫 번째 국립극단이고, 극작가 중심 극장이라는 정체성과 비전을 확실히 해 왔다.

### 극작 개발 프로그램 “스튜디오”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신진 극작가들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작품이 공연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신진 극작가들이 혁신적이고 독특하며 흥미로운 새로운 작품을 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열코트는 수많은 극작 소모임을 운영하며, 격년에 한 번 열리는 신진 작가 페스티벌(Young Writers Festival)과



### ○ 극장 개요

잉글리쉬 스테이지 컴퍼니(ESC) 소유의 비영리 극장

수용인원은 1층 380명 2층 85명

최초 개관 1870

재개관 1888년, 2000년

다른 이름으로 1870년 뉴 첼시 씨어터, 1871년 벨그라비아 씨어터

### ○ 연혁

1870년 '뉴 첼시 씨어터'라는 이름으로 개관, 최초의 극장.

1871년 '코트 씨어터'라는 이름으로 바꿈.

1882년 개량되어 수용인원이 최대 728명이 됨.

1887년 7월 22일 폐관되어 헐림.

1888년 9월 24일 현재 극장은 슬로안 스퀘어의 동쪽에 새로 지어짐. '뉴 코트 씨어터'라는 이름으로 개관, 약 800명 수용.

1952년에 500명 정도 수용인원으로 감축되어 재개관.

러프 컷츠(Rough Cuts, 초고 상태의 미완성이지만 실험적인 작품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극본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가지망자들이 자신의 대본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첫 기회(낭독공연)를 제공한다.

극작가 그룹, 페스티벌, 러프 컷츠(Rough Cuts) 시즌은 마이크 바틀렛(Mike Bartlett), 폴리 스텐엄(Polly Stenham), 루시 프레블(Lucy Prebble), 로라 웨이드(Laura Wade), 볼라 아그바제(Bola Agbaje)와 같은 영향력 있는 젊은 극작가들이 이끌고 있으며 작가지망자들이 극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스튜디오”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 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 교육 프로그램

로열코트의 교육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을 공연제작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영국을 선도하는 극작 극장으로서, 전 연령의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로열코트의 교육 프로그램은 백스테이지투어는 물론 리허설과정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로열코트 프로덕션에서 제작하는 전문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흥미로운 계기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① 프라임타임 스쿨 투어

런던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8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들이 쓴 10개의 천재적이고 창의적이며 독특한 연극으로 구성되어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극화된 작품을 실제로 공연으로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또래 친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연극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라임타임의 연극들은 <로열 코트 신진작가 축제Royal Court's Young Writers Festival> 와 <2012 페캄의 신진 작가 프로젝트Peckham Young Playwrights project in 2012>의 일부로서 로열코트의 전문 배우들에 의하여 공연되었으며, 10세 내외의 어린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기획공연과 함께 로열코트는 극작 워크숍을 무료로 제공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문학적인 극작 기법을 가르치고 이들이 미래의 극작가가 되는 가능성을 발굴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가을에 새롭게 시작될 <학교 극작가 프로젝트Schools Playwriting project>와 연계될 예정이다.

#### ② 로열코트 씨어터 1일 체험하기(Royal Court in a Day)

대본 리딩에서 제작까지의 과정을 둘러보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영국을 선도하는 작가 중심극장의 하루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방문 전에, 학생들은 세 개의 짧은 극본을 읽어 와야 한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극본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드라마투르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플롯, 구조, 캐릭터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오후에는 로열코트 교육팀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작품을 리허설 한다. 학교와 협의를 통해 참가하며 10~11세 이상의 학생 당 10파운드의 (약 18,000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 ③ 공연예술 산업 체험하기(The Performing Arts Business)

영국에서 가장 바쁜 극장의 하루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로열코트 각 부서 미니 탐방' 세션을 포함하여 일련의 실용적인 워크숍을 통하여 로열 코트의 실제 업무를 경험한다. 극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양한 종류의 직업들을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와 협의를 통해 참가하며 10~11세 이상의 학생 당 10파운드의 (약 18,000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 ④ 교육 관련 단체 할인

로열코트의 모든 퍼포먼스에 대해 교육관계 단체의 관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화-금 저녁 공연 관람료 28파운드를 14 파운드로, 20파운드를 12 파운드로 할인해 주며 8명 이상의 교육관계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화-금 저녁 공연의 2층 관람석에 한해 20파운드를 10파운드로 할인해 준다.

### ⑤ 극작가 마스터클래스(Masterclass with Playwrighter)

교사들을 위한 INSET 워크숍으로 로열코트에서 공연된 작품의 작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실질적인 극작 연습은 물론 극작의 창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제공한다. 비정기 / 참가비 10파운드(약 18,000원)

이외에도 스터디, 프로덕션 워크숍,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www.royalcourttheatre.com/pigeonslive](http://www.royalcourttheatre.com/pigeonslive)에서 공연을 생중계하여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열코트 씨어터는 지하에 바(BAR)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연 관객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또 연극관련 전문 서점을 운영하여 로열코트에서 발굴한 신작 대본 뿐 아니라 연극 전반의 대본, 기술서적 및 극장과 관련 있는 사무엘 베케트, 캐릴 처칠 등 유명작가의 대본을 구비하고 있다.



↑ ↑ 소호 씨어터 전경  
↑ 로열코트 저우드씨어터

↑ ↑ 포레스트 프린지 디렉터 앤디필드  
↑ 로열코트 씨어터 전경

### 부시 씨어터

런던 서부에 위치한 부시 씨어터(Bush Theatre 이하 ‘부시’)는 새로운 시각의 작품을 배출하는 극장으로 유명하다. 부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극작가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며, 그들의 작업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극화한다. 부시는 위트와 스타일, 열정을 가진 동시대의 새로운 작품을 찾고 있으며, 파격적이면서도 일반 관객이 좋아하는 작품을 선호한다.

부시는 1972년 이후, 40년간 신작만을 공연하며 획기적인 작품을 수없이 제작하여 초연하면서 전세계의 진보적인 극단, 극작가들과 작업해왔다. 부시는 젊은 극작가들의 요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능력 있는 제작자와 유망한 작가들을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극장 운영 방식이 재능 있는 배우와 연출을 부시로 끌어들이는 한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극장이 수상한 100개 이상의 상이 그것을 증명한다. 부시는 영국 공연예술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의심의 여지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가 만난 부시 씨어터의 예술감독 마다니 유니스(Madani Younis)는 개성과 소신이 아주 뚜렷하였다. 캐리비안 혈통의 마다니 예술감독은 2012년 취임한 이후 2013년에는 99%의 관객 점유율을 이룬 가장 성공적인 예술감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6년 칸영화제에서 그의 단편영화가 상연되었는데, 원래 영화계에서 교육받은 그는 대칭적 관계와 기승전결이라는 전통적 연극구조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낡은 것”이라 주장한다. 연극이란 “세상을 보는 렌즈”라는 표현과 함께 극부와 극빈,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환경의 인근 지역을 포함한 지금의 런던, 더 나아가 지금의 세계, 즉 드러내지 않지만 상존하는 인종차별과 백인중심 문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을 담아내는 과감한 시각의 작품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다.

### 신작 공모

부시는 제작 극장으로서 자체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극본과 연극을 찾는다. 부시는 전통적인 형식과 소재의 연극보다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한다. 특히 바로 지금의 삶이 투영된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대적 작품을 선호한다. 부시의

신작 공모 프로그램은 그 취지에 부합되는 작품, 지금의 관객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고유한 시각을 지닌 스토리를 원한다.

부시는 창의적인 연극을 제작하는 극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가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 무대에 올린다.

- 1년에 두 차례 공모를 받는다.
- 꼭, 대본 형태가 아니더라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 사진, 음악 등 공연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작품화 가능성이 있는 소재를 공모한다. 연간 제출되는 편수는 2,000편이 이상으로 이 중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기존 작가들의 응모 편수는 300~400편 정도이다.
- 연출가, 제작자, 작가 등 현업 예술인들만으로 구성된 6명이 심사를 통해 적절한 작품을 선별한다.
- 선별된 작품은 작가, 연출가, 제작자, 음악, 미술 등의 스태프들과 함께 공연 가능성을 타진하고 보완하며 그 과정을 거친 작품 중 4~5작품을 선정한다.

## 작품 제작

선정된 작품 중 4작품 정도는 부시가 단독 제작하며 1개 작품은 다른 제작사와 공동으로 제작한다. 1년에 보통 6개 작품을 공연하는데 위의 5개 작품 외에 1작품은 잘 만들어진 외부 작품을 선택하여 그 대본을 런던배우들이 공연한다. (영국 내, 외의 작품)

모든 공모작은 부시에서의 공연을 염두에 두고 검토된다. 작가의 극작을 돕기 위해 작가가 원할 때는 전문 작가나 드라마투르그의 도움 및 극장 내에 마련된 별도의 집필실을 제공한다.

공연이 결정된 작품의 작가료로 6,500파운드(약 1,100만원)를 지급하고 모든 제작비는 부시에서 부담한다. 작품당 제작비는 평균 90,000파운드(약 1억7천만원) 정도며 부시의 공연에는 유명배우들도 극장의 명성을 믿고 미니멈 개런티인 주당 380파운드(약 65~70만원)로 언더스터디 없이 출연한다.

작품 당 공연 기간은 1주간의 세팅, 4~5일 간의 프리뷰, 하루의 프레스 리허설을 하고 6주간 공연한다. 만석이지만 공연수익은 언제나 적자다. 새로운 연극을 발굴하려는 목적이므로 비영리로 운영하고 그 이유로 공공기금 지원을 받는다.

## 극장 운영과 지역에 대한 사회적 기능

부시의 1년 총 예산은 200만 파운드(약 38억 원)이다. 총 수입 중 25%는 ACE(Arts Council England)의 지원, 25%는 입장수입, 25%는 개인후원자의 후원금, 나머지 25%는 식음료 판매와 공간 임대수입으로 예산을 충당한다.

부시는 15명의 정규 직원과 10명의 임시직원으로 운영되며 1895년에 도서관으로 건축된 극장건물의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목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 이 도서관 역시 연극에 특화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이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이 근처 지역 공동체와 연극 사이의 핵심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아일랜드, 호주, 시리아, 아랍, 인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런던 가운데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서관은 각 공동체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고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 등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극장을 접하게 된다, 부시 씨어터의 작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과 정보의 보관소가 아니라 삶에 지친 대다수의 이주민들에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연극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바(BAR)는 물론 극장의 연습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유상으로 대여하여 극장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 소호 씨어터

소호 씨어터(Soho Theatre 이하 '소호')는 런던 웨스트엔드와 아주 가까이 위치한 극장으로 가장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중적인 선호도가 높은 극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삶의 모습과 갈등을 드러내는 지금의 문제점들을 솔직히 제기하는 새로운 작품, 코미디, 카바레 쇼를 층마다 컨셉이 다른 극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위의

두 극장에 비해 상업성과 흥행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호 씨어터의 목표는 관객이 가장 재미있고 새로운 연극적 작업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퍼포먼스들을 결합함으로써 영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고 디지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의 거점이 되고자 한다. 소호는 재능 있는 신진 작가, 그리고 기성 작가들이 소호에서의 공연으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작품을 발전시켜 최고의 작품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호는 런던 최고의 코미디/카바레 극장이다. 또한 지역에서 가장 북적이는 씨어터 바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보고 싶을 때,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찾는 명소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 극장 운영

2층의 150석의 아늑한 느낌의 극장과 3층의 90석 연극 전용극장, 지하의 90석 카바레 전용극장으로 연간 17만 여명의 관객을 동원한다.

### ○ 프로덕션

신규 작가 양성프로그램으로 발굴된 최신작, 대중성 있는 코미디, 스탠드 업, 및 카바레 쇼의 적절한 배합으로 젊고 다이내믹한 관객에게 어필하여 영국 극장가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라 할 수 있다. 자체 제작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외부와 연합해 공동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 ○ 해외 교류

웹 및 광고 스폰서 활용으로 신홍 시장인 인도와 코미디 쇼 교류, 실시간 영상으로 라이브 공연 전달 등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 자체 제작팀 구성

펀딩, 풀타임 연출, 프로듀서, 하우스 팀, 식음료, 홍보, 및 기술팀이 상주한다.

## 공연작품 선정 시스템

런던 창작연극의 산실로 신작 발굴 및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중으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대본을 접수하며 그 응모 편수가 약 2천 편이 넘는다. 접수된 작품은 6명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을 통해 피드백 과정을 거쳐 연간 6편을 선정해 공연화 작업을 지원한다. 철저하게 공연이 가능한 작품을 위주로 선정한다.

새로운 소재의 대본을 찾고 창작 지원을 하고 있는 작가 양성소의 역할과 함께 영국 각 지방에서 새롭게 창작되어 공연하고 있는 작품은 물론, 에딘버러 페스티벌 등 프린지 축제에서 주목받는 작품들을 직접 발굴하여 소호극장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소호의 작품 선정팀은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공연 제안을 검토한다. 흥미 있는 작품을 만난다면 응모 후 8주 이내에 작가에게 직접 연락을 한다. 소호극장의 신작 선정 기준은 새로운 작품, 새로운 각색, 그리고 코미디다. - 소호극장은 기존의 작품은 공연하지 않는다.

예술팀에는 프리랜서와 풀타임 연출가들, 제작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듀서는 새로운 공연을 찾기 위해 영국 전역과 미국, 유럽은 물론 여러 페스티벌을 통해 가능성 있는 작품을 찾아다닌다.

소호의 무대에 오르는 모든 공연의 대본 선택 과정은 대단히 완고하며 공연을 올리기 전에 확신이 들 때 까지 몇 달 동안 다양한 전문가와 작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소호극장에서 제작할 경우 배우에 대한 최소 개런티(주당 390파운드 - 약 70만원)를 포함한 모든 제작비는 소호극장에서 지출하며 공연수익은 6(작가): 4(극장)으로 배분한다

소호에서 공연된 작품은 영국의 전 지역과 해외에서도 공연될 수 있도록 마케팅과 매니지먼트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 교육 프로그램

### ① 16세에서 26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강좌

10월에서 익년 6월까지 진행되는 글쓰기강좌는 100파운드(18만 원가량)의 강의를 받고 있으며 1달에 한 번씩 3시간 정도의 1대1 방식의 개별 교육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수강생은 소호 씨어터의 공연을 정가의 20%만 내고 볼 수 있다. 26세 이상의 무직자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은 BAC의 지원과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한다.

### ② 영 씨어터 메이커스(Soho Young Theater-Makers)

‘영 씨어터 메이커스’는 14-18세를 대상으로 하며, 자신만의 무대를 기획, 실연, 제작하는데 경험을 쌓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소호 씨어터가 추천하는 공연예술 전문가들, 극작가들, 코미디언과 영화 제작자들과 함께 1주의 무료 워크숍을 진행한다.

### ③ 영 컴퍼니(Soho Young Company)

16-26세를 대상으로 코미디나 극작 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2011년에 처음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젊은 작가지망생들이 자기 자신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초보 작가 프로젝트(Soho Young Playwright Project)

17년째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어린이들의 극작 재능을 키우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웨스트민스터의 5개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들에게 극작 기술을 소개하고, 학교 커리큘럼으로 5개의 창의적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방갈로르의 파트너 학교인 자그리티 씨어터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의 프로그램 테마는 ‘전환transition’이며 변화 혹은 움직임의 잠재력에 대해 탐구한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프로 극작가의 도움을 받는다. 자신만의 드라마 대본을 창조하고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학교 속의 코미디(Comedy in Schools)

2011년 웨스트민스터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본 워크숍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수업 내, 방과 후, 2시간 혹은 종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로 동영상 교재를 사용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코미디 씬을 웹사이트에 직접 올릴 수 있다. 각각의 세션은 5~18세까지 연령별, 그룹 규모별 및 주제별로 기획되었다.

### ⑥ 비명 지르는 사람들(Soho Screamers)

영화관에서도 검증된 프로그램에 착안하여, 소호의 ‘비명 지르는 사람들’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이다. 잘 제어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부모님과 아이들이 보모를 찾을 걱정 없이 함께 코미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Theatre’ 새로운 극장의 미래를 위한 영국의 시도

강낙현 | 두리춤터/포이어 프로덕션 예술감독

지난 20여 년간 영국을 오가면서 많은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비교적 생소한 문화 또한 익숙해져가며 어느 정도 영국에 대한 이해가 많아져 간다는 생각을 갖던 중, 이번 리서치를 통해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9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영국에서 체류하며 겪고 보고 들었던,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동시에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어떤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많은 부분 나에게 미화시킨 인상을 준 게 아닐까 하는 끊임없는 의문들이 이번 리서치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이었다.

누구나 영국의 공연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수없이 많은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및 상업 연극들, 셰익스피어, 로열 오페라, 잉글리시 내셔널과 왕립 발레단 등 영국의 전통적 공연 문화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나아가 오프 웨스트 엔드(Off West End) 극장들의 에너지와 실험성 그리고 수없이 많은 중소규모의 극장들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실험하고 만들어 내고자 하는 도전 정신은 영국 공연계의 큰 장점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각 극장 또는 감독들마다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선불리 추측할 수는 없었다.

리서치 기간 중 배터시 아트센터, 내셔널 시어터, 캐러밴 쇼케이스, 아트어드민, 잉글랜드예술위원회, LIFT 페스티벌 등의 관계자 및 기획자들을 만나며 공통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의 활동들 대부분은 세금으로 걷어진 공공 지원으로 운영,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영국의 공연예술계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 등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예술 활동이 좋거나 어떤 관심에 있어서 작업이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해야 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자신들만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자신들의 단체나 기관 혹은 개인만의 이익이 아닌 영국

문화예술계 공적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당장 금전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서슴지 않고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예로 내셔널 씨어터의 경우 외부 작가나 다른 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 작가들과 작업을 해 나가고 얼마 전 소극장을 수리하며 생긴 임시극장 '셰드(SHED)'를 통해 조금 더 그 협력 관계를 확장했을 뿐 그다지 다른 단체나 기관과의 협력은 드문 편이다. 이러한 다소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도 불구하고 내셔널 씨어터 역시 장소 특정적(site specific) 프로젝트나 외부 제작 공연의 홍보물을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셔널 씨어터의 예술감독 로빈 혹스(Robin Hawkes)에 의하면 이런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들이 제작하거나 개입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웹사이트에 공연 자료를 올려놓고 티켓 판매만 대행해 준다는 것이었다. 본인들의 인지도나 웹 트래픽을 이용하여 다른 영국 단체의 노출도가 온라인을 통해 올라가고 내셔널 씨어터 역시 그러한 전통적 연극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연을 올린다는 인식으로 새로운 관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아마 내셔널 씨어터가 하는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이로 인해 생기는 이득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렇듯 내셔널 씨어터와 같은 보수적 기관도 자국 공연의 발전을 위해 기회의 제공과 자원 공유를 아끼지 않으며 힘쓰는 것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와 캐러밴 쇼케이스의 경우 역시 자국 아티스트들은 물론 이거니와 국적을 불문하고 영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영국 예술로 간주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단순히 이들은 예술에 대한 지원,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비단 자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의 발전만이 아닌 광범위한 의미와 목적의 예술 활동 전반적 수준 향상을 통해 자신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배터리 아트센터(예술감독 데이비드 쥘(David Jubb))는 한발 더 나아가 극장의 레지던시 시스템을 지역 사회에 도입시켜 예술뿐만 아니라 지역 젊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법을 '에이전시(AGENC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고 있다. 에이전시 프로그램이란 배터리 아트센터가 가지고 있는 '책임 프



↑ 배터리 아트센터  
↓ 내셔널 씨어터 전경





로듀서'제를 통한 사업 창업 프로그램으로 배터시 지역의 창업을 원하는 어려운 젊은이들 즉 충분한 자본이나 사업 모델이 모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 배터시 아트센터는 많은 레지던시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때까지 제작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약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발전되며 끊임없는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2~3년의 기간 중간 중간 점검 단계의 프레젠테이션(SCRATCH) 즉 워크숍 공연을 진행하며(티켓 가격: 10~15파운드) 그 자리에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얻으며 작품을 발전시켜 나간다. 아티스트들에게는 작품의 창의성과 참신성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연'이라는 제약과 정형성을 최대한 배재하며 실험적 작업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공연들은 내셔널 씨어터나 캐러밴 쇼케이스 같은 곳들로 소개되며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배터시 아트센터 측은 자부하고 있다. 그들의 슬로건인 'Inventing the future of Theatre'(새로운 극장의 미래를 개발하기 위하여)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과감하고 실험적인 운영방식인 것이다. 혁신적인 방식과 실험적인 작품이 중심이 되는 대규모 극장임에도 예술적 성취 뿐 아니라 공공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또한 간과하지 않고 공공성에 최고 운영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배터시 아트센터에서 제작 지원된 작품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프로젝트 개발 중간 단계에 외부로 나아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전혀 거부감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업계의 풍토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본 리서치의 대부분을 '융합공연'이라는 범주로 포커스를 맞춰 바라보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영국의 현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융합공연'이라는 카테고리로 공연이나 활동 자체를 나누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융합 형태의 공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부분이 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는 장르간의 융합이 없는 공연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융합 공연'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모순되게 느껴진 게 사실이었다. 우리의 경우 융합 공연을

↑↑↑ 내셔널 씨어터 전경  
 ↑↑ 캐러밴 쇼케이스, 브라이튼  
 ↑ 캐러밴 쇼케이스, 브라이튼

장려하고 지원하되 ‘단순 융합’을 지양한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융합 공연의 정책적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 많은 작가들이 너도 나도 자신의 장르 위에 어떤 장르라도 겹쳐서 발표하게 되는 상황들이 정책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어떤 융합도 단순 융합이다 아니다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번 리서치를 통해 얻게 된 답은 이들은 작업을 만들어내는 방식 혹은 그러한 작업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기관의 운영방식까지 모두와 협업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업계의 룰을 깨기 위한 과감한 시도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혹은 사람들에게 외면 받는 게 두렵다는 이유가 이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새로운 극장’ 즉 공연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의 공연, 단순히 다른 공연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 새로운 관객개발을 위해 본인들이 느껴온 불합리한 공연 형태를 깨는 ‘New Theatre’(새로운 극장)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 10년이 쌓여왔고 노력들의 결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분명 하루 아침에 뭔가를 다르게 만들기 위한 단기적 형태의 변모는 아니었으며 30~40년간 정체되어 있던 본인들이 자부하는 공연의 미래를 위해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3

# 한-영 커넥션: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

배재휘 | LIG문화재단 프로듀서

한국에 있는 공연기획자가 영국 런던으로 가서 그 곳의 삶과 공연예술계 인사들, 공간들, 장소들을 방문하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대의적 목적은 같은 공연예술이라고 할지라도 각 나라의 특색과 지역성에 맞게 달라진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각자의 나라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겠다.

개인적으로는 주 업무인 공연 제작에 있어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할 이들이 있는지 찾아보거나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에 있었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아쉽게도 이것이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될만한 기회는 가지진 못했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현재 공연 제작형태와 방식 그리고 그들에게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것으로 개인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본다.

한국에서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을 모두 조사하여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LIG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은 타 장르의 젊은 평론가 그룹 형성을 위한 <영크리틱스 크리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약 3달간의 워크숍과 이들의 공연으로 이루어진 현대무용가 안은미의 <1분 59초 프로젝트>를 2년 째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예가(부산 지역 아티스트), 움직임 연구가(브라질 아티스트), 청소년 연극 배우(NIE 소속)들이 워크숍 형태로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된 적도 있다.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중 노팅엄이라는 도시에 있는 ‘댄스4(Dance4)’라는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담당자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1년에 30~40명 정도 일종의 수강생 개념의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 프로그램으로 비견하자면 학원이나, 문화센터 혹은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달고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흡사한 형태이다. 물론 국내에서 LIG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도 있다. ‘댄스4’에서는 흡사한 프로그램으로 ‘댄스4’의 협력 아티스트 중 1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헤라클레스>라는 공연이 있다. <헤라클레스>는 주인공 역할을 제외한 출연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1~2달 간 연습과 훈련을 통해 작품에 출연한다. 역할은 대부분 조연급이며, 작품은 단체 군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새들러스 웰스 전경  
 → 더 플레이스 전경  
 ↓ 새들러스 웰스 전경



이런 프로그램은 <1분 59초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형식으로 일반인을 공연에 출연 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출연료는 없고, 대신 작품에 필요한 연습과 워크숍, 훈련 등은 무료로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과 영국 공연예술계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은 크게 2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워크숍과 세미나, 강연 형식이며 두 번째는 공동 창작 형식이다. 그 목적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일반인들이나 준전문가(학생 포함)에게 예술에 대한 교육과 주최 단체의 수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반인들에게 예술에 대한 친근함을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줌에 그 목적이 있겠다.

LIG문화재단에서는 주로 두 번째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댄스4'에서는 첫 번째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쇼핑몰 문화센터나 각 공공지역단체에서 첫 번째 형태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성을 위해 LIG문화재단은 두 번째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공연 예술단체들이 재정적 자립도를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 형태의 프로그램을 많이 취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각 국가별로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므로 인해 같은 이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지라도 그 목적과 의도하는 바가 크게 달라지며 이로 인해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은 예술가만이 최고라는 엘리트 예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관객이 예술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프로그램을 마치고

### 참가자들 간의 이야기

2014. 6. 30

#### 참여자

강낙현 / 배재휘 / 정대경

###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

**정대경**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리서치였던 것 같아요. 15분 단위의 살인적인 일정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동해야 할 만큼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덕분에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좋았고, 특히 극장을 많이 가본 것들이 참 좋았어요. 무용 전용극장도 비슷한 경우이고, 특히 연극중심의 극장에서 하는 신작 개발이랄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고 이게 우리 소극장들이 그나마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크게는 우리나라 지원정책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극장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의 자생노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전통적인 연극보다는 새로운 것, 뉴 드라마에 대해 거의 광적인 집착과 한 극장 당 2천편 정도씩 공모를 받아서 그 중 작품을 선정해서 올리는 것 등 그런 작업들이 결국은 연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역시 잠재 관객을 육성하고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느낌을, 인상을 가지고 왔어요.

**강낙현**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일단 그들은 예술적으로 뭘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이 재미있고 아닌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관객을 더 끌

어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작품을 할 때 이것을 '판다'는 개념으로 보기 보단 만들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영국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러오는 사람이 재미없고, 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왜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극장, 작은 극장 할 것 없이 점잔 뺄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정대경** 우리는 확실히 흥행성을 앞세우면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흥행성이 있느냐보다 얼마나 작품성, 예술성이 있는지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만난 부시극장의 예술감독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기승전결의 구조 자체를 지극히 배제하는 것 같았어요. 그 극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 영국에서 부와 극빈이 존재하고,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그러하지 지난 이야기 가지고 자꾸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배재휘** 프로그램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자면 전반전은 공통 프로그램이었고, 후반부는 브라이언트와 노팅엄에서의 개별 프로그램이었어요. 공통 프로그램은 후루룩 훑고 지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잘 몰랐던 전반적인 영국 상황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어떤 안무가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더 플레이스 프라이즈(The Place Prize)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번에 다녀오지 않았었다면 그 말을 듣는 의미도 지금과는 너무 달랐을 거예요.

프로그램 끝나갈 무렵 '댄스4'의 예술감독인 폴 러스(Paul Russ)를 만났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로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작업하는 방식이나 제작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 마디로 좋은 프로듀서를 만난 거죠. 그들이 롤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이 더 뛰어나다고 애초부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걸 할 수 있겠어요. 저들은 저렇게 하는구나를 보고 온 거죠.

## 이쉬운 점과 보완해야 할 점

**정대경**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책이나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에 다녀와서 프로그램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이렇게 나랏밥을 고맙게 먹어본 적은 처음이라는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배재휘**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이 사업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프로그램의 포커스는 무엇이다 라고 좀 더 명확한 방향이 있었다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참가자들의 관점이 다르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유나 목적도 매우 다르잖아요. 같은 걸 보더라도 자기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업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강낙현** 저는 영국에 가기 전에 참가자들끼리 미팅을 몇 번 더 가졌다면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가자들 간의 정보공유도 없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미리 더 알았더라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프로그램을 마치고

### 공연예술 관계자들과의 이야기

새로운 관객, 미래의 관객을 주목하는 영국 공연예술\*

#### 전강희 | 연극 칼럼리스트

지난 6월 30일 서울연극센터에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영 커넥션: 공연예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영국을 방문해 리서치 작업을 수행했던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커넥션 살롱 토크'가 있었다. 각자 리서치 주제에 따라 영국의 '소극장', '다원예술',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발제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관객이 놓여 있었다. 그것도 새로운 관객, 미래의 관객에 대한 이야기였다. 100년이 넘는 극장과 셰익스피어가 있는 나라의 공연계가 고민하는 지점이 우리 공연계가 최근 고민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어 흥미로웠다. 차이가 있다면 그곳의 환경이 행정가와 예술가가, 그리고 이들의 계획과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현장인 극장이 우리보다 더욱 유기적인 체제로 엮여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발제자 중 한 명인 한국소극장협회 정대경 이사장은 영국의 이런 공연 환경이 최근 10년간 노력했던 결과물이라고 한다. 참가자 정대경, 강낙현(두리춤터/포이어 프로덕션 예술감독), 배재휘(LIG문화재단 프로듀서)가 답아온 현장의 목소리를 글로 남기고자 한다.

#### 영국의 소극장 —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인 정대경은 소극장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 영국문화원이나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지원 제도가 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았다.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고, 다양한 극장과

단체가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 정책은 각 극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의 극장과 장애인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극장에 대한 적용이 분명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공통점이 있다면 각 극장마다 신작 발굴과 관객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작은 극장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동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형식과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역량을 모은다. 상업극도 이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대학로의 극장이 예술성이 떨어지는 작품들이 평단의 외면을 받는 것과 달리 이곳의 분위기는 어떤 종류의 극이라도 동시대성을 반영하는 극이라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형식을 찾다보니 다원예술을 지향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또한 극장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익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공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극장이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사례로 로열코트 씨어터, 소호 씨어터, 부시 씨어터를 들고 있다. 이 세 극장은 모두 연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극장이다. 1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로열코트 씨어터는 신작 개발을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외국 작가도 머물고 있다. 해당 모국어로 작품을 쓰게 하고, 1작품 정도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년에 2,000 작품 정도를 공모 받고 이중에서 가장 시의성이 있고 새로운 형식을 갖춘 작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극장이다. 소호 씨어터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극장이다. 지하에는 스탠딩 코미디를 전문으로 하는 카바레가 있고, 1층에는 운영이 잘되는 카페가 있다. 2층에는 150석 규모의 일반 극장, 3층에는 실험극을 할 수 있는 90석 규모의 소극장이 있다. 이곳도 2,000여 정도의 작품 공모를 매년 받고 있는데, 완벽한 형태의 대본뿐만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도 심사를 하고 있다. 부시 씨어터는 극장 건물 안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위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공연 연습실과 작가 집필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극장과 마찬가지로 카페가 있고, 극장 공연 대본집도 판매하고 있다. 총예산이 38억 정도인데, 지원금, 개인 후원금, 매표, 카페 수입과 공간 임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항목별로 25% 정도의 예산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 극장의 예술감독이 캐리비안 출신의 이민자인 만큼 작품의 소재도 영국 전통적인 것만이 아닌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커뮤니티 중심의 극장이다 보니 극장을 찾는 주민이 다양하다. 매년 공연의 관객이 70%가 새롭게 채워질 정도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 영국의 다원예술 — 새로운 관객 확보를 위한 노력

강낙현은 영국에서 다원예술은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시작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특별히 이 장르를 지칭하는 정책적인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시도하는 새로운 제작 방법이나 도입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을 뿐이다. 영국은 오랜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공연예술계에서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클래식에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없이, 예술이 관객과 함께 늙어 갔다. 40~50년 정도의 정체기를 겪고 나니 새로운 관객, 젊은 관객의 발걸음을 극장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갈 요량으로 새로운 표현 방식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다.

새로운 형식의 모색은 관객 참여형 또는 제작 참여형 디바이징 워크를 바탕으로 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기존에 익숙한 연극 같은 형태가 아닌 아크로바틱의 결합, 피지컬 씨어터 등이었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극장이 아닌 공간으로 변화했다. 공연장에 젊은 관객, 또는 새로운 관객 유치를 위해 경쟁 상대를 술집이나 클럽, 또는 TV 시청과 같은 활동들로 설정했다. 최근 10년 이루어졌던 노력이 지난 40~50년간의 노력보다 더 큰 변화를 이끌었다. 관련 장르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터시 아트센터를 들 수 있다. 이곳은 문학 중심이 아닌 디바이징 워크를 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열정과 능력이 있다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때까지 제작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약 2~3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워크숍 공연을 진행하여 관객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시켜 나간다. 실험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공연들은 에든버러나 캐러밴 쇼케이스 등에 소개되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 영국의 커뮤니티 댄스 —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

배재희의 발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단체는 칸도코(CANDOCO)였다. 영국에 수많은 장애인 댄스컴퍼니가 있고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팀이 바로 칸도코다. 이곳의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업을 한다. 비장애인 안무가가 장애인 무용가와 무용 공연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치와 다르게 장애인 안무가가 안무를 한 작품도 있다.

예술가들이 모이는 허브 역할을 하는 아트어드민 또한 인상적이다. 서울연극센터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마음이 맞으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파트너도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더 플레이스 역시 예술가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아트어드민과 차이가 있다면, 이곳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모이는 연령층이 더 어리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새들러스 웰스는 협력 아티스트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다. 이곳에는 총 3개의 극장이 있는데 대형 극장, 실험 극장, 대중적인 공연을 하는 극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극장들은 예술가 협력형 극장들이다.

배재희에 따르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도 다원예술만큼이나 다양하고 모호하다. 관객 참여형이나 커뮤니티 씨어터라는 개념 또한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분야에서 만큼은 한국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현재 한국적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란 일반인들이 모여서 일반인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패널로 참석한 주한 영국문화원 박윤조가 영국 커뮤니티 아트의 방향성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일반 개인의 예술 활동 참여를 어떻게 늘리느냐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테이트(TATE)나 비비시(BBC)에서 주로 행하고 있고, 두 번째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예술가가 아닐지라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한다.

\* 본 원고는 2014 커넥션 살롱 토크 'UK Now' 리뷰로, 2014년 7월 3일 'weekly@예술경영' 웹진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 방문 기관 및 일정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1946년 설립된 대영제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of Great Britain)가 1994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웨일스예술위원회로 나뉘면서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영국의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산하 비정부공공기구로서 잉글랜드 지역 내 다양한 예술장르(공연예술, 시각예술, 음악, 문학, 디지털예술 등)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기금과 국립복권위원회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에 '모두를 위한 훌륭한 문화예술(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이라는 10개년 전략계획안을 발표하여 영토 구축구석,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w.artscouncil.org.uk](http://www.artscouncil.org.uk)

### 배터리 아트센터 Battersea Art Centre

배터리 아트센터(BAC)는 런던 배터시에 자리한 공연장이며 특히 음악·공연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아트센터는 1893년 배터리 마을 회관으로 지어진 문화재 건물 안에 1980년 설립되었으며, 잉글랜드예술위원회와 런던 완즈위스구 등에서 건물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BAC는 단순한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완성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작품을 개발하고 관객에게 선보이는 사다리식 개발(Ladder of Development)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때 관객의 비평적인 관점과 의견이 작품 개발에 반영되기도 한다.

[www.bac.org.uk](http://www.bac.org.uk)

### 아트어드민 Artsadmin

아트어드민은 혁신성과 실험성을 가진 장소특정적, 다원 예술작품과 공연제작을 위한 예술연구소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기관으로서 예술가를 발굴, 지원하고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알리는 예술기관의 선두주자이며 예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재정의 50퍼센트를 잉글랜드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과 동시에 진행되었던 런던문화올림픽의 장애인 예술가 프로젝트 '언리미티드'를 2014년부터 2년간 이끈다.

[www.artsadmin.co.uk](http://www.artsadmin.co.uk)

### 브라이트 페스티벌 Brighton Festival

브라이트 페스티벌은 매년 5월 3주간 브라이트앤호브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예술축제, 음악, 연극, 무용, 서커스, 미술, 영화, 문학, 토론, 야외, 가족 이벤트 등을 포함한다. 48주년을 맞은 이 페스티벌은 작품을 의뢰하기도 하고 직접 제작하기도 하며, 매년 신선하고 대담한 프로그램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잉글랜드 최대 복합예술축제로서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예술가, 극단, 관객을 끌어오고 있다. 2014년 6번째 초청예술감독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안무가 호페쉬 쉐터가 선정되었으며, 과거 예술감독으로는 계관아문문학가 마이클 로젠, 배우이자 인권운동가인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미얀마 민주화지도자 아웅산 수 지, 세계적인 미술가 아니쉬 카푸어 그리고 음악가 브라이언 이노가 있다.

[www.brightonfestival.org](http://www.brightonfestival.org)

### 칸도코 댄스 컴퍼니 Candoco Dance Company

칸도코 댄스 컴퍼니는 1991년 셀레스테 단데커와 아담 벤 자민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장애인 무용수와 비장애인 무용수들의 공동작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7년 은퇴한 예술감독 셀레스테 단데커는 과거 런던현대무용극단 무용수였으나 무대에서 떨어지며 척추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던 그녀의 경험으로부터 이 극단이 생겨났으며 이후 각종 언론과 관계자의 찬사를 받는 세계적인 극단으로 발돋움한다. 영국 최초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무용 수업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이 교육 프로젝트에 매년 만 이천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www.candoco.co.uk](http://www.candoco.co.uk)

### 캐러밴 쇼케이스 Caravan Showcase

캐러밴 쇼케이스는 잉글랜드의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공연을 3일 동안 선보이는 행사로 브라이트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격년으로 열린다. 장소특정적, 관객참여적 공연을 주로 선보인다. 심포지움, 레지던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잉글랜드 예술가들을 잉글랜드 및 국제 공연제작자와 연결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www.caravanshowcase.org.uk](http://www.caravanshowcase.org.uk)

### 로열코트 씨어터 Royal Court Theatre

뉴욕타임즈에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극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로열코트는 비영리 극장으로 1888년 지어진 문화재 지정 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영국 및 전세계의 혁신적인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여 슬론스퀘어에 위치한 두 극장에서 그 작품들을 선보인다. 최근에는 뉴욕, 시드니, 브뤼셀, 토론토, 더블린에서도 작품을 올렸다. 로열코트는 제작 뿐 아니라 해외의 유망 작가들을 영국으로 데려와 집필 단계부터 지원하고, 영국 작가, 배우, 연출을 해외로 내보내는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www.royalcourttheatre.com](http://www.royalcourttheatre.com)

### LIFT 페스티벌 LIFT Festival

런던국제연극축제(London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인 LIFT는 동명의 예술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예술 프로그램으로 공연, 대담, 설치 등 예술 행사를 선보인다. LIFT는 1981년 세상을 보는 창을 연다는 미션과 함께 설립되어 전세계의 이야기들을 런던으로 가져와 런던을 하나의 무대로 만든다. 2014년 프로그램은 왕립아카데미에서부터 배터시의 다락방에까지 런던 곳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3만8천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지역적, 예술적으로 소외된 곳에서 동시대를 이야기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www.liftfestival.com](http://www.liftfestival.com)

### 새들러스 웰스 Sadler's Wells

새들러스웰스는 탱고에서 힙합, 발레에서 플라멩코, 볼리우드에서 최신 댄스 작품까지 모든 장르의 무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극장이다. 런던에 세 군데 극장(이슬링턴의 로스버리 애비뉴에 위치한 메인 극장, 릴리안 베일리스 스튜디오, 피콕씨어터)을 운영하고 있다. 작품 의뢰, 제작, 투어도 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80 여편의 새로운 무용 작품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www.sadlerswells.com](http://www.sadlerswells.com)

### 더 플레이스 The Place

더 플레이스는 영국 캄든 구역 유스톤에 위치한 현대무용 센터이다. 1970년대부터 런던현대무용극단의 본거지였으나, 현재는 런던현대무용학교, 리처드 엘스톤 무용단이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200여개의 공연을 선보이는 로빈 호워드 무용 극장이 위치하고 있다. 40년 동안 더 플레이스는 무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허브이자 전세계에서 최고의 안무가, 재능 있는 무용수들이 모여드는 곳이자, 무용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다. 현재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독립무용가들을 지원하는 무용계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www.theplace.org.uk](http://www.theplace.org.uk)

**Korea — UK Connection :**  
**Arts Exchange Programme 2014**